

# 수행의 계절 맞아 불교 강좌 인기

## 힐링아카데미·MY리더스클럽에 광주 불자 몰려

고사성어에 등화가진(燈火可親)이란 말이 있다. 등불을 가까이 두고 밤늦도록 책 읽기 좋은 때를 말한다.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봄은 불교수행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높은 하늘, 따뜻한 날씨, 그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다스린다면 좋은 불교 강연을 들을 것을 권한다.

광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품격 있는 불교 강연이 개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끝자락에서 배우는 삶의 시작' △석전사 주지 진옥 스님의 '더불어 나누는 힘 자비! 그 안에 담긴 힐링'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실상사 주지 해강 스님의 '선재동자의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의 '어느 누가 아프지 않음'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의 '행복을 꿈꾸는 종교, 행복을 꿈꾸는 그대' △정토사 주지 해강 스님의 '開思修! 듣고 사유하

유료강좌에도 100명 수강

각각 13명 유명 강사 강연

고 수행하는 삶'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참사람운동을 통해 만난 힐링'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무문 스님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 계율과 자기치유' △불지사 주지 범능 스님의 '범능스님의 노래이야기' △보리수선원장 붓다리카타 스님의 '내 생애 단 한번뿐인 오늘' 등이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또한 2010년에 개최돼 광주불교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불교리더스클럽은 '좋은 벗들과 떠나는 행복한 구별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개강을 하여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2010년에 개최돼 광주불교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불교리더스클럽은 '좋은 벗들과 떠나는 행복한 구별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개강을 하여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4월 10일 힐링아카데미에서 선암사 강주 목우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다.

총 13분의 강사와 다양한 주제로 만난다. 강연에 참여한 강사도 불교계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도법 스님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목경찬 박사의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의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친구 맺기'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생각바라기 연습'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 원장 서광 스님의 '치유하는 불교 읽기'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차원 스님의 '상징으로 본 사찰의 의미'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불교미술의 상징과 문양' △

김재성 불교학연구회 상임이사의 '초기불교에 보이는 재가자의 이상적인 삶' △前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의 '대승불교'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동국대 명상상담학 겸임교수 명법 스님 '언어습관 속에 숨어 있는 자아 만나기'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우리 시대에 불교관' 등이 진행된다.

특이 이번 강연은 지역불교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연에 참여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음식을 통한 마음 나눔 눈길

## 착한 벗들, 이주여성 대상 음식강좌 개설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전통음식 강좌가 개설돼 눈길을 끈다.

착한 벗들(이사장 회일, 참총은우리절 주지)은 4월 9일 '마음 나눔 생활요리 자연음식' 강좌를 개강했다. '마음 나눔 생활요리 자연음식'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10주 동안 진행된다. 전주 강좌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된장찌개, 갈비찜 등 일상생활에서 즐겨먹는 생활요리 중심으로 사찰음식을 포함한 자연웰빙음식도 함께 교육된다.



이주여성들과 회일 스님이 만든 비빔밥을 들고 웃고 있다.

9일에는 서로 다른 식재료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맛을 내는 전주비빔밥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이날 강좌에서는 비빔밥의 성격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어울리는 따뜻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회일 스님은 "음식을 만드는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음식에 깃든 문화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이주여성들이 배운 음식습관을 활용해 행복나눔실천단 봉사활동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마친 이주여성들은 6월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 음식공양을 진행한다. 10월에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비빔밥축제"에도 참가해 각 나라 음식과 조합된 퓨전비빔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좌는 자연음식문화원과 국제요리학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063)236-0602 조동제 전북지사장

# 덕진 로타리, 금산사 복지에 차량 전달

2500만원 상당, 유류비 100만원도 지원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해온 전북불교회 관 경로식당에 배달용 차량이 생겼다.

전주덕진로타리 클럽(회장 홍주영)은 4월 8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동길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사 복지원(대표 원형)에 무의탁 노인 도시락 배달용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2500만원 상당의 경차 2대다. 이교성 前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는 차량유류비 100만 원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덕진 로타리 클럽은 8일 차량을 전달했다.

홍주영 전주덕진로타리클럽 회장은 "매일 무의탁 노인 89명에게 불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며 "로타리클럽 Matching Grant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형 스님은 "덕진로타리클럽의 봉사 정신을 이어 더욱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

조동제 전북지사장

# 2011년 조성 시작 화엄사 범종불사 회향

회향식까지 5000명 동참, 종삼 스님 퇴임식 겸해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범종 조성불사 회향법회가 4월 12일 봉행됐다. 이날 범종 조성불사 회향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 주지 종삼 스님, 천은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해 서기동 구례군수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법회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 축사, 법어, 제막식, 타종 순으로 진행됐다.



회향사 범종불사 회향식 모습

종삼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성종 복원불사는 문도스님들과 신도들의 일심원력에 가능했다"며 "회향사는 전통문화사찰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발전의 중심으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삼 스님은 이어 "복원불사를 통해 8년의 주지 임기를 마무리한다"며 "새 주지스님과 함께 화엄사가 성장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퇴임사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길전 화엄사 명예신도회장의 위촉과 감사(원광식, 양승문) 증정 등도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일 대법종을 타종을 하는 것은 지혜의 문이 열림을 의미한다"며 "6도 모든 중생들이 다같이 기뻐해 지혜를 얻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로 조성된 범종과 범종각은 2011년 1월 조성불사를 시작해 5000여 명이 동참했다. 무게 3,300관으로 선덕대왕신종을 모본으로 화엄사 석탑 사자상 문양을 새겨 넣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석전 스님 65주기 추모제 봉행

한국불교 근대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 스님 65주기 추모제가 4월 9일 선운사 대적광전과 부도전에서 봉행됐다.



선운사 부도전에서 열린 추모제

이날 추모제에서는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前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 도선사 광복 스님, 도선 스님, 금강사 혜성 스님 등 스님들과 문중원으로 재덕, 재곤 스님, 도륜, 해산 스님 등 문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오 스님은 석전 스님의 스승인 설유 스님이 친필로 작성한 서화와 <설옹문하축노>와 <불조종파>를 기증했고 재곤, 보원, 종걸, 종명 스님도 석전기념관 건립을 위해 석전 스님의 생전유물과 근대 고승들의 서책, 간찰, 선화, 병풍 등을 기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운사 복지법인, 고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선운사 복지법인(지부장 법만)은 3월 22일 고창 월곡지구에 건립예정인 아동복지센터 내 어린이집 수탁운영자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총 14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고창 어린이집은 9월 개원 예정이다.



복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복지법인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를 어린이집 운영과 연계에 전 세대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